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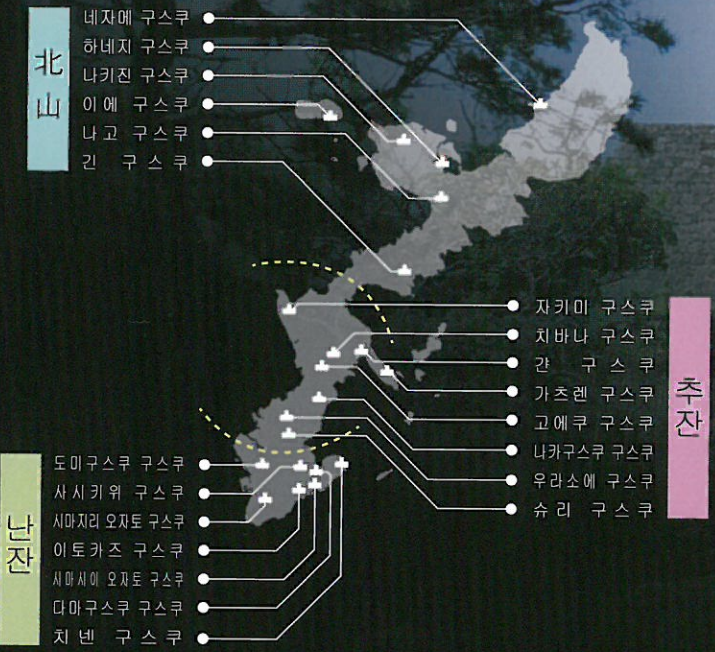
세계 유산
 류큐 왕국의 구스쿠 및 관련 유산군
국가 지정 사적



자키미 성터

(座喜味城跡)

■ 산잔 시대의 지역 개념과 주요 구스쿠



■ 역사 연대표

	8세기	13세기	15세기	17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일본	구석기	조몬	야요이	고분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진정	막부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세이
오키나와	구석기	패총 시대		산잔 제1 쇼씨 구스쿠 시대		제2 쇼씨 (전기)	제2 쇼씨 (후기)	오키나와현 시대	미국 통치	오키나와현					

14세기의 중국 역사서에서는 류큐가 호쿠잔과 추산, 난산의 3국으로 나뉘어 3명의 왕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추산의 쇼 하시가 평정하였습니다. 자키미 성터는 구스쿠 시대와 류큐 왕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전환기에 축성된 성입니다.

아오리아헤카후시 권13의 68
 많은 외국 무역선이 몰려오는 것으로 평판이 자자한
 윤탄자의 항구.
 오늘은 「오시아게마루」가 입항한다고 듣고,
 구경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와 보니,
 역시 항구의 활기가 아주 유명한 윤탄자의 항구다.
 여러 북방 국가의 외국 무역선이 100척,
 여러 남방 국가의 외국 무역선이 80척이나 모여
 항구의 활기찬 광경은 압권이다.

17세기 초의 류큐 가요집 「오모로사우시」에
 게재된 노래로, 윤탄자의 항구에 남북 여러
 지방의 배가 모인 광경을 노래하고 있다.

[문 의]
 오미탄촌립 역사 민속 자료관(요미탄촌 교육위원회 문화진흥과)
 (우)904-0301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요미탄촌 자키미 708-6
 TEL.098-958-3141 FAX.098-982-9022
<http://www.vill.yomitan.okinawa.jp/sections/culture/post-51.html>

자키미성은 15세기 초에 축성으로도 유명했던 윤탄자 아지 고사마루(護佐丸)가
 쌓았다고 합니다. 고사마루는 당초 자키미의 북동쪽 약 4km에 있었던 야마다성에
 거성하고 있었지만, 1416년(1422년이라는 설도 있음) 추산의 쇼 하시의 나키진성
 (호쿠잔성) 공략에 참전한 직후에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 자키미에 축성했다고
 합니다. 1944(쇼와 19)년에는 구 일본군의 고사포 진지가 되었고, 전후 1956(쇼와
 31)년에는 류큐 정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1960(쇼와 35)년에 미군의

레이더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된 1972(쇼와 47)년에는
 국가 지정 사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3(쇼와 48)년부터 1985(쇼와
 60)년까지 문화청과 오키나와현의 보조를 받아 성터의 발굴 조사나 성벽 수리를
 실시하여 일상적으로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00(헤세이 12)년 12월 2일에는 주민 대망의 「류큐 왕국의 구스쿠 및 관련
 유산군」 자산의 하나로 세계 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자키미성터



상공에서 본 자키미 성터(항공 사진)

자키미 성터는 나고츨(적갈색 흙)을 기반으로 하는 표고 약 120m의 구릉에 입지하고 있으며, 2개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공에서 보면 성벽은 중후하고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벽 안 면적은 성벽을 포함해 7,383㎡ (2,234평), 성벽은 높은 곳이 약 13m, 낮은 곳이 약 3m이다.

항공사진 촬영 협력 : 우에조 공업주식회사



① 2개의 석조 아치문

제1 성벽의 아치문(안쪽)은 복원된 것이지만, 제2 성벽(앞)의 것은 거의 당시의 것을 수리했다.



설석(제2 성벽 아치문)

제2 성벽 아치문 천정의 설석은 삼각형이고, 제1 성벽의 설석은 사각형이다.



곡선 성벽

자키미 성터의 성벽은 현대 땅의 평면 아치 구조와 유사하여 취약한 지반 위에서 견고하다. 각 평면 아치를 잇는 부분에서 외적을 감상할 수 있다.



② 초석건물터

제1 성벽 안에서는 폭 16m, 안 길이 14m의 건물터가 발견되었다. 지붕 기와는 출토되지 않았고, 건물 지붕은 띠 또는 판자였다고 생각된다.

자키미 성터의 복원 수리

제2 성벽 아치 석문



수리 전
[1973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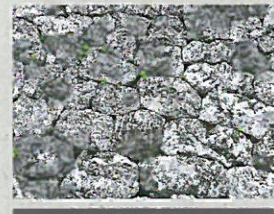
수리 후
[2014년 촬영]

제1 성벽 아치 석문 부근



자키미 성터의 축석

자키미성에서는 주로 궤쌓기 방법으로 성벽을 쌓았지만, 아이카타즈미와 노즈라즈미도 부분적으로 이용되어 오키나와 구스쿠에서 사용된 축석의 주요 기술을 엿볼 수가 있다.



아이카타즈미



궤쌓기



노즈라즈미

발굴로 나타난 계단



제1 성벽으로 오르는 계단은 구 일본군의 고사포 진지 건설 시에 묻혔지만 발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③ 기진등롱

고사마루(중국명 모국정(毛国鼎))의 자손 자키미 우에카타 세이후(모달덕(毛達德))가 1843(중국 연호 도광 23)년에 에도 산후(에도에 가서 근우)로 도쿠가와 12대 장군 이에요시에 대한 경하사(부사)로서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귀국했을 때에 영지 성내 배소에 건립했다.



웨가(泉)

성내에 샘은 없지만 성벽 아래에는 샘이 많아 동쪽 골짜기의 웨가도 수원이었다고 생각된다.



야마다 성터(온나촌)에 남아 있는 축석

고사마루는 14세기 말에 야마다 성(현재의 온나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일설에는 이곳 성벽을 해체해 자키미성에 사용했다고 한다. 야마다 일대는 예전에 「후루유탄자」라고 불렀다.



고사마루 묘(나카구스쿠촌)

고사마루는 1440년 경에 자키미성에서 나카구스쿠성으로 옮겼다고 하며, 1458년의 「고사마루와 아와와리의 난」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여겨진다. 나카구스쿠 성터 근처의 묘에 안치되었다.



④ 배소

자키미 성터에는 니고젠, 조나이히누칸, 조나이 아자나이시 고이베, 온탄 자조나이노토노의 4배소가 있었다. 현재는 제2 성벽 아치 문 앞으로 이전되었다.



출토품으로는 중국제 도자기(청자, 백자, 염부), 갈유 도기, 구스쿠 토기, 가우이 도기, 옛날 돈, 쇠못, 쌀, 보리, 콩, 짐승과 물고기 뼈 등이 있다. 유물은 15~16세기 무렵의 것까지 출토되었고, 고사마루가 나카구스쿠성으로 옮긴 후에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